

종교개혁사상가들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⁵⁶⁾

박갑출⁵⁷⁾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되어 하나의 종교 단체로 존재할 뿐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으로 치욕을 받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서의 가르침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사회복지개념을 기초시키는 성서속의 예수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총괄적인 개념인 이웃사랑은 구약과 신약 성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성김이 결합된 것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즉, 십일조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을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를 외면하고 착취하여 개교회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16세기 서구교회처럼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성서와 종교개혁사상을 바탕으로 십일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십일조의 기독교사회복지적 함의성을 찾아 이웃사랑의 정신을 회복하여 바른길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독교사회복지, 십일조, 종교개혁가들, 이웃 사랑, 약 빈자

1. 서론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도처에 하나의 종교의 단체로 존재할 뿐 기독교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만시지탄의

56) 본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57) 하늘문교회 담임목사

치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막다른 골목에 온 것은 자타가 인정 할 수밖에 없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서의 가르침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 작금의 현실 이다.

이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이 일반세속사회와 거의 차별화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의 큰 계명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예 대한 고유한 성서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신앙인과 교회는 성서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봉사를 수행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사회복지개념을 기초시키는 성서속의 예수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봉사의 총괄적인 개념인 이웃사랑은 구약전통에서있는 초기 유대교 전승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들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새로운 질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서 속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적 특성으로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말씀선포와 이웃사랑의 당위성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속에서 이웃사랑의 의미는 예수가 가져온 질적으로 새로운 봉사로써 하나님나라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인간에 대한 섬김이 서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바로 십일조라는 것인데, 이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면서 이웃사랑을 위한 소외된 이웃에게 당연한 몫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몫을 외면하고 착취하여 고대광실 높은 건물을 세우는데 바쁘고 더 높이 더 크게 현대판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아 이웃과의 소통은커녕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6세기 서구교회처럼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심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싸구려 종교집단으로 전락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그러므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십일조가 지니는 성서와 종교개혁사상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적 함의성을 찾아 바른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종교개혁사상가들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종교개혁시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

김수학은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이 관련학자들의 합일(合一)된 생각이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불안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의 소란함이 거듭 누적됨으로써 일어났다(김수학, 1990:299). 성서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는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십일조’는 종교 개혁의 이슈 중 하나였다. 십일조는 개혁의 과정 속에서 성서적 원칙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그 법과 제도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세기에 들어와 교회 부흥이 일어나 교회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십일조가 다시 중세 교회의 그릇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Euan Cameron, 1991:293-313).

1525년 종교 개혁이 확대되는 가운데 독일 남부 슈바벤(Schwaben)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항거에 대한 기초를 성서와 복음에 두었다. 그들은 성서와 복음을 근거로 12개항의 개혁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십일조에 대한 성서적 사용’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내용에 주목(注目)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십일조가 그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것은 성서 분문을 통전적으로 바르게 수용하는 것이었다(Euan Cameron, 1991:302-313).⁵⁸⁾

강성욱은 성경에 기초한 종교개혁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 핵심 교리(Five Sola)를 아래와 같이 인용 설명하였다. ‘오직 성서(Sola Scripture)’,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예수(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의 의의를 함축하였다(강성욱, 2014:36-37).

<표 1>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기본 핵심 교리

Five Solas	교리의 의미
Sola Scriptura (by scripture only,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일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므로, 문체가 명료하며 자기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 밖에서

58) Olivier Christin, 『종교개혁: 루터와 칼뱅, 프로테스탄트의 탄생』, 59 이하; 가장 간결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종교개혁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직접적 가치를 전해주는 요소다. 기본적으로 종교 개혁의 메시지는 당시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수많은 종교세 및 국왕에게 바치는 헌금들, 조공물, 연회와 접대들, 그리고 중세 종교의 그릇된 종교 행태를 폐지하고 거부하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p>성서)</p>	<p>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전승에 의해서만 권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교회 전통(Prima Scriptura)과는 반대된다. Sola Scriptura가 기독교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독교의 전통도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있으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전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p>
<p>Solus Christus (through Christ only, 오직 그리스도)</p>	<p>자연인의 상태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죽어 있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역조창생의 죄 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것이 Solus Christus에 담긴 내용이다.</p>
<p>Sola Gratia (by grace only, 오직 은혜)</p>	<p>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혀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듯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다.</p>
<p>Sola Fide (by faith only, 오직 믿음)</p>	<p>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p>
<p>Soli Deo Gloria (Glory to God only, 오직 하나님께 영광)</p>	<p>사제들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되던 중세 가톨릭교회에 반하여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이다.</p>

<자료: [<http://ko.wikipedia.org\(2014.3.9\)>](http://ko.wikipedia.org(2014.3.9))>

위와 같이 종교개혁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수도원들이 해체됨에 따라 수도원 조직으로 들어갔던 십일조는 왕의 재산으로 돌려졌다. 또한 십일조는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로 돌려지기도 했다. 이것은 명백히 십일조의 원래 목적과는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면죄부와 아울러 십일조의 거짓된 정체가 폭로되고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결과 서방 카톨릭교회는 십일조 수입을 상실했다. 이제 십일조는 다시 성서적으로 복음의 목적을 위해 재 고찰 되었다. 스위스의 재세레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자와 십일조 모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폭동을 일으켰던 독일의 농민들은 1525년의 12개조 선언에서 그들이 십일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복음주의 교회들은 십일조가 보다 엄격하게 정의되어져서 징수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로부터의 재산 양도에서 십일조에 대해 배척하는 풍조가 확대되었다.⁵⁹⁾ 이렇게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권력과 세력의 과도적 진공상태에서 십일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주로 평신도들 사이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서적인 해석과 이해의 올바른 준거(準據)없이 수입의 일정한 분량을 하나님 사업에 봉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현세의 축복은 물론 모든 삶의 현실에서 부와 번창을 약속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근거로 차용한 성서 본문은 말라기 3장 10절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실제와 경향은 한국 교회의 실상과 매우 동일하다. 한국 교회의 규모와 조직들이 비대해지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필요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세속적 목적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세속적인 목적과 방법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종교개혁의 동인(動因)과 그 대상(對象)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훼손 및 변질된 형태의 십일조를 오히려 부활시키고 강요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回歸)하는 반역사적(反歷史的) 태도를 견지(堅持)하고 있는 셈이다(조누가, 2013:100-101).⁶⁰⁾

2)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루터의 성서적 현금사상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도 십일조 제도는 당연히 있었다. 농민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525년 2월말에 독일 슈바벤(Schwaben)에서 농민들이 제시한 "12개

59) 항목, "십일조", 『기독교대백과사전』, 696.

60)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 시대 동안 막대한 십일조 수입으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온 로마 카톨릭은 이제 십일조 교리를 버리고 자율적인 현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M. Luther 와 John Calvin과 같은 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을 추종하는 후대 개혁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시 중세 교회와 역사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탈현대의 교회가 중세로 회귀하여 왜곡된 십일조를 강화하고 교리화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시대적 착오이자 오류인 것이다.

조항"에는 곡물의 십일조는 성직자에 대한 사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 시의 곤궁을 대비한 비축식량으로 써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십일조는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루터의 답변은 십일조의 폐지는 "도둑"이다 라는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루터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십일조를 폐지할 생각은 없었으며 그것이 또한 성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했다. 그리고 그는 십일조는 아니지만 교회헌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전제해야 한다(김문기, 1998:313).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개혁은 신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 예로 루터는 신자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글을 1523년 작센 선제후국의 라이스니히의 성 마태우스교회의 헌물함에 있는 헌금의 사용에 관한 글을 통하여,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루터는 헌금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은 물론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라이스니히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십일조와 헌금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기독교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며 물질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것이므로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며 인간이 결코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십일조와 헌금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성서적인 가르침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문기, 1998:306-316).

루터는 세상적인 왕국에 있어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지만,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루터는 가난한 자들은 제도적으로 국가나 교회에서 보살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루터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섬김은 없다고 말했다(신영일, 2015:61). 또한 루터는 『독일 민족의 크리스찬 귀족들에게』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구걸하러 가서는 안된다. 모든 도시는 그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부양해야 하며 그 도시가 너무 작으면 주위에 있는 촌락들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M. Luther, 189)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하여 나온 개혁적인 교회들은 교회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개혁적인 견해가 구체화되고 더불어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의 생계비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관련된 교회 제정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김문기, 1998:314). 이러한 필요를 위하여 루터는 1523년 작센 선제후국 라이스니히시에 있는 성 마태우스 교회(Stadtkirche St. Matthäus)에 보관된 헌물함에 있는 제물들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그 사용의 실례를 ‘교회의 헌물함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자세히 밝혔다.

특히, 루터는 그 해당규정에서 예언자적인 단호한 입장에서 수도사들과 결인들의 구걸 행위를 금지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규정했다(M. Luther, LW 45:186ff). 헌물함은 라이스니히의 교회 안에 4개의 자물쇠로 채워져 안전하게 보관되었으며 이 자물쇠 4개는 모두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귀족, 시의회, 시교회, 농민의 대표가 각각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문기, 1998:314). 종교개혁시대에 각 교회에 있었던 이 헌물함은 교회 자체보다는 시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루터는 이러한 운동이 라이스니히에 있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본받아서 행하도록 인쇄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루터가 서문을 쓴 라이스니히(Leisnig) 교회의 헌물함에 대한 규정(Ordnung eines gemeinen Kastens, 1523)에서 교회 헌금의 수입과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루터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중세의 가난과 구걸, 그리고 자발 가난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사상에 반하여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루터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매우 악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신학 혁명의 중심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배척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대의 구걸과 자선행위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공덕과 구원을 위한 신앙행위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중세의 고해제도나 자선 사상을 비판하고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했다(박경수, 2009:94).

루터의 95개 조항에서 면죄부에 대한 43항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5항은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보고도 본 체 만 체 지나쳐 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회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41-52항의 주제는 면죄부가 선한 행위와 같등하다고(박호용, 2002:162) 주장한다. 그

래서 면죄부 제도가 구제의 이웃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루터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행위는 우리 예배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모든 소유를 나누던 교회에서 예배와 구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지만, 중세를 거치면서 그 둘은 분리 되었고, 루터는 다시 이 예배와 구제 행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킨 개혁자다(서원모, 2008:80).

또한, 1523년 라이스니히 규례는 지역 교회의 재정에 요한 역할을 했던 공동 헌금함에 대한 규정을 보여준다. 라이스니히의 헌금함 규례는 루터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고, 루터의 승인을 받은 규제이다. 이 규례는 개 교회가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재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다. 공동헌함은 교회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과 신자들의 다양한 헌금, 기부금을 모두 헌금함에 모으도록 했다(서원모, 2008:80).⁶¹⁾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2명의 위원이 각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얻은 헌금과 헌물을 헌금함에 넣고, 음식은 매일매일 분배했다. 또한 이 2명의 위원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2개의 자루 혹은 헌금접시를 들고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거두어 헌금함에 넣으며, 이 헌금함의 열쇠는 공동 헌금함에 보관했다. 또한 라이스니히 규례는 공동 헌금함에 모인 헌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했다. 라이스니히 규례는 목회자, 교회사찰, 학교, 가난한 자들, 공동건물, 곡물의 비축을 위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서원모, 2008:80).

3) 존 칼빈(John Calvin)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칼빈의 성서적 헌금사상

칼빈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투철한 예배의 요소에 대해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쓰니라”라는 구절을 통해 이를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간주했다. 특히 이 구절에 나타난 네 가지 요소가 온전한 공 예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이정숙, 2011:187), “교회가 모이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의 참여와 그리고 구제헌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 되었다(이정숙, 2011:25)” 라고 하며 예배의 네 가

61) 교회에는 통이나 케 두 개를 설치하여 치즈, 달걀, 고기 등 음식이나 물품을 받고 동일한 작은 함을 한두 개 설치하도록 했다.

지 요소에 구제헌금(almsgiving)⁶²⁾ 을 포함시켰다(주승중, 2008:187)⁶³⁾ 또한 교회의 “감사제사” 를 말한 기독교강요 4권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라 말하며, 이 교회의 감사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예배” 라는 말씀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며, 신자들이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따라서 빈궁한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관용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신자들의 모든 선행은 제사로 귀결된다고 설명한다(박문재, 1995:531-532).

종교개혁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존재의식을 천명한 가치관의 대 변혁적인 운동 이었다(S. E. Ozment, 1975:65). 칼빈 사상에서 서로 섬김으로서의 사제직 개념은 칼빈주의 사회복지 개념의 신학적 근본이 되었고 제도적으로는 그의 4중 직제의 집사직(deacon and deaconess)을 통해 표현되었다(C. Lindberg, 1996:262). 사실 칼빈은 교회 직분들이 본연의 자리를 찾게 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들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성경에 언제나 충실하고자 했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실천하고자 했던 그의 영성에서 직제의 본질에 대한 그의 신학이 출현하였다. 사도행전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맡았다. 그러나 중세기동안 집사는 교회의 보조사제였다.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은 오히려 주 업무가 아니었다. 칼빈은 집사의 역할은 반드시 세상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중 집사직(double diaconate)’을 시작하였다. 두 그룹의 집사직을 통해 한 그룹은 기금을 마련 운용하고, 또 한 그룹의 집사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몸으로 섬기게 하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곤경에 처한 이들을 상담하는 일도 바로 집사들의 역할이었다(C. Lindberg, 2000:171).

그들은 언제나 칼빈에 의해 격려되었으며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룹으로 여겨졌다. 중세기 교회는 자선이 구원의 조건임을 내세워 많은 헌금을 거둬들였다. 이들 중 절대 액수는 구제가 아닌 교회를 위한 외형적 사업에 남용되

62) 사도행전 2장 42의 말씀 ‘교제’ 는 칼뱅에게 교인들 간에 이뤄지는 상호적이지 자비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때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거나 평화의 키스를 보내는 것도 교제라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이 ‘구제헌금’ 은 곧 ‘교제’의 행위와 결부되는 것이다.

63) 헌금은 교회의 일치와 공동의 유대를 상징한다. 헌금을 드림으로 직접 우리 자신이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칼뱅은 예배의 요소로서 설교, 성만찬, 기도, 그리고 ‘구제’ 를 포함시킨 것이다.

었고 심지어는 부패한 주교들과 교황들의 개인 재산으로 전용되었다. 칼빈의 개혁은 경건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가난한자를 향한 구제 사업의 전면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R. S. Wallace, 1990:113). 예산 수립, 모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칼빈은 투명성을 견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위한 병원(General Hospital)이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병원은 현대의 병원들과는 달리 단순 치료기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사회복지 사업의 센터였다. 또한 칼빈의 사상과 사역이 근현대 교육복지사회에 끼친 공헌 편으로, 당대 유럽과 영국 어느 곳에서도 그만큼 사례를 보기 어려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제네바에서는 목격되고 있었다. 고아는 13세까지 시에서 돌보았으며 이후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과부들과 무연고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알선하였고, 노동할 수 없는 이들은 병원의 병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하고 생계를 위해 급료를 주었다(Donald K. McKim, 2004:166). 특히 수많은 피난민들을 위해 제네바가 역사에 남긴 구체적인 사회복지 제도는 바로 “Bourse(fund: 기금)”이다. 이것은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 Bourse Franciase(French Fund)가 조성되었다. 이 자선기금 모금과 운용은 무려 25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탈리아 피난민들을 위해 제네바에서는 Bourse Italienne(Italian Fund)가 만들어져 무려 1869년까지 지속되었다. 독일인이나 네덜란드인, 영국과 폴란드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서는 Bourse Allemande(German Fund)가 만들어졌다(Jeannine E. Olson, 1989:34).

(2) 칼빈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칼빈은 다른 개신교 개혁자들과 이 땅의 물질과 직업, 그리고 자선에 관해 같은 견해를 가졌으나, 이 견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좀 달랐다. 그는 이 땅의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대한 감사는 바로 칼빈 사상의 중요한 주제였다. 그리고 칼빈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사용은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더불어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신자의 중요한 관심사여야 하고, 하나님은 물질의 부(富)를 원하시기보다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을 두고자 하신다(엘시 A 맥키, 2001:113-114). 칼빈은 교회에 대한 이해의 차원에서 성도들의 삶의 요체가 이웃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의 일부분의 삶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데서 나를 낮추는 온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청지기의 직무와

같다며,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눔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이미 주신 예수님을 통한 사랑으로 성도들은 그 사랑을 나름대로 모든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 중심이 자신의 삶에 자리하도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사치와 영화, 욕심과 소망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인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하여 교회의 수입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마음과 행위, 물질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십일조를 포함한 헌금의 사용은 ①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②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③ 교회의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④ 교회 밖 국내외 가난한 자들을 하여 쓰이는 것이 헌금의 사용처가 된다고 하였다. 특별히 성직자를 위한 부분에서 ‘검소하고 절제 있는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 자신을 위하여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교회의 십일조를 포함한 헌금의 용도가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이도록 매우 엄격한 집행을 강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칼빈은 당시 교회 수입 운용의 부패함을 비난하기도 했는데, 그는 적어도 교회 수입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삶의 방향도 이웃을 돌보는 이웃사랑과 구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냈다(손병덕, 2008:345-356).

근대 사회복지의 효시로서의 칼빈의 사상 또한, 칼빈은 교회재정원칙을 제시하면서 교회윤리와 경제윤리 양 측면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교회 재정은 영리목적이 아닌⁶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결코 화려하고 웅대한 건물을 구축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과시형 이벤트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에 교회 헌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문제, 1979:119). 교회재정의 핵심인 헌금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교육, 구제와 봉사에 기준을 두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김문제, 1979:11).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해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재정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금이 구원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구원의 결과로 드러지는 예물이라고 했다(이원우,

64)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영리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내부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영리목적이 앞서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2009:35).

이처럼 칼빈은 극도로 타락한 중세교회시대의 물질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해 주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는가를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다(홍치모, 1985:89). 그는 이러한 재물관리의 관점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하여 재물을 무계획적으로 낭비하는 것’도 반대하였다고 부스마(William J. Bouwsma)는 밝히고 있다(홍치모, 2000:459). 사실상 칼빈은 부의 평등한 분배를 선행으로 보지 않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물질에 초연할 것을 더 강조하였다(이원우, 37). 따라서 칼빈의 재정원칙을 요약하면 성경적 헌금의 수급과 집행에 입각하여 예배와 선교에 우선하고 아울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구제와 사회봉사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주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집행기준을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철저한 계획성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원우, 33).

4)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츠빙글리의 성서적 헌금사상

울리히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상은 인문주의적 경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성서를 개인의 행위와 국가의 윤리, 그리고 교회실천을 통제하는 신적 율법으로 보았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통일을 옹호했다. 그는 찰스 5세를 폐위시키고 헤세의 필립을 독일 황제로 등극시키려고 했다. 츠빙글리는 가톨릭 사제인 에라스무스의 개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비판적 판본을 통해 성서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츠빙글리 역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성경에 충실한 믿음을 강조한 마르틴 루터처럼 성경만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라 주장하며 직설적인 개혁주장으로 적이 많았고 그래서 교리적인 면보다는 용병제도 반대, 숙박업 반대 등 스위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혁안에 관한 성토가 대부분이었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 불붙은 종교개혁이 스위스로 번졌다. 스위스는 칸통(칸턴)이라는 13개 자치구역의 연맹국가였다. 어떤 칸통은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어떤 칸통은 가톨릭을 고수했다. 궁극적으로 스위스는 내전을 겪었지만, 그 결과 각 칸통은 자체의 종교를 결정한다는 원리가 확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⁶⁵⁾

츠빙글리는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 캉통의 연합을 이끌던 인물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루터의 교리에 동의하며 개혁의 노선에 나섰다. 즉, 성서에 직접적 언급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믿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면벌부, 단식, 화체설, 성인 숭배, 성직자 독신주의 같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종교 제례를 거부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의 생각이 마르틴 루터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스위스와 독일의 개신교도들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산출되리라는 생각에 한 백작이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동의하던 그들이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앙숙이 되었다. 그것은 성찬식의 빵에 크리스트가 함께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츠빙글리는 빵에 크리스트가 영적으로만, 즉 상징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반면 루터는 크리스트가 영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육체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루터는 츠빙글리를 광신도라고 공격했고, 츠빙글리는 루터가 중세의 성사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헤어졌다.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나 칼빈처럼 영도적 입장에 서진 못했지만 그 다음가는 개혁자로 평가할 수 있다.

서양의 종교개혁은 십일조와 관련된 헌금에 대한 개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쥐어짜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교황청을 향해 헌금에 대한 반박문을 썼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성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⁶⁶⁾는 구원에 대한 내용은 바른 헌금을 가르치자는 루터의 성경적인 반박논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감리교에 영향을 준 웨슬리가 있다면 장로교의 크나큰 영향을 준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의 스승인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십일조를 면죄부(속죄권)와 연속 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츠빙글리의 '개혁 67개 조항'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는 사람에게 십일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율법적 십일조 폐지론을 주장했던 츠빙글리는 가톨릭 군대와 싸우다 잡혀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 서구교회의 십일조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십일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을 만큼 십일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종교적 주제였다. 19세기 중반에 세금으로 징수되던 십일조가 서방의 모든 국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1300년 동안, 십일조는 자발적인 헌금이

65) <http://m.blog.daum.net/kyboo610/8105007> (2016.11.11.).

6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아니라 예배와 관계가 없는 반 강제적이며 공적인 명분의 세금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두 번의 밀레니엄을 지나는 동안 교회는 이미 교리에 관한 거의 모든 신학적 해답을 얻었다고 믿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개신교를 성경적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라는 말은 얼마나 애매모호한 표현인가! 불행하게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원론'에서조차도 교단간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논쟁에 비하면 '십일조 논쟁'과 '안식일 논쟁'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는 수수께끼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 논쟁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세금'과 '헌금'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일어나는 불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박일배, 2012:17-18).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거룩과 함께 교회가 혼합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재세례파와의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교회의 신자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츠빙글리로 하여금 재세례파와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갖게 하였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박경수, 2007:182-192).

(2) 츠빙글리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츠빙글리 개혁의 윤리사상은 바젤에 살던 에라스무스와의 생각과 사상을 나누던 것에 큰 영향을 받아 신약성경연구방법론을 토대로 한 기독교 윤리적 이상의 실현에 중심이 있었다. 그 기독교적 윤리와 사회복지적인 이상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명하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다(임희국, 2007:15-18). 한편 츠빙글리가 목회를 하던 취리히에는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교회와 매리 민스터 재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구제를 담당했다. 이러한 투철한 기독교 복지적 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사회적 약·빈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위선적인 탁발수도승 제도를 정리하고 그 대신에 츠빙글리는 진정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시

작해야 한다고 말했다(Ulrich Gäbler, 1987:97). 츠빙글리의 헌신적인 개혁정신으로 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 가난에 찌든 거리에는 거지와 도둑이 넘쳤다. 돈벌이라고는 용병으로 팔리는 길뿐. 자식을 맏인으로 만들어 동냥에 내모는 부모도 있었다. 21세기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 스위스의 지난 16세기 사회상이었다. 스위스가 빈곤에서 벗어난 계기는 종교개혁과 병행된 사회개혁. 오히려 츠빙글리(Ulrich Zwingli)가 시발점이다.

1484년 루터보다 7주 늦게 태어난 1세대 종교개혁가인 츠빙글리의 사상적 토대는 인본주의 ‘우신예찬(愚神禮讚)’을 지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의 서신교류를 통해 타락한 종교로부터 억압 받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에 교회갱신과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다. 온몸을 던져 흑사병 환자들을 돌본 덕에 신망을 얻은 츠빙글리는 개혁의 시초를 용병과 숙박업 금지에서 찾았다. 재정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교육책을 동원해 도덕성 회복을 꾀한 셈이다. 대신 강제성 세금인 십일조헌금 등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용병 대체산업으로 시계업과 방직업도 키웠다.

또한 그는 예배도 돈이 많이 드는 의식 대신 간소한 설교 중심으로 바꿨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예배의식 차이가 이때 생겼다.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 장로교의 근본 뿌리도 사실은 츠빙글리의 영향이 큰 것이다. 개혁사상은 스위스 각 지방으로 퍼졌지만 산림자치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가 척박해 용병 외에는 돈벌이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는 생활필수품 공급을 끊으며 개혁과 개종을 강요했다. 산림자치주들의 선택은 전쟁. 1531년 10월12일, 취리히 남방에서 일어난 카펠 전투에서 신교 군대는 가톨릭 군에 패하고 츠빙글리도 전사했다. 47세라는 인생의 황금기에 안타깝게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츠빙글리의 사상은 켈빈을 거쳐 땀 흘려 일하는 청교도적 생활윤리관을 낳고 자본주의 발전으로 이어졌다.⁶⁷⁾

5) 마틴 부처(Martin Bucer)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부처의 성서적 헌금 사상

마틴 부처는 황제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 중 그 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전하께서는 먼저 모든 형태의 성직매매와 함께 저 저주스런 신성모독죄와

67) 『서울경제신문』, [오늘의 경제소사/2006.10.11] 츠빙글리에 관하여...

극악무도한 교회약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약탈의 허용으로 인해 성직록(聖職祿, 목회 사례비)이 이 가장 무가치한 자들에게 호의로 혹은 어떤 대가로 지급 되는데, 매우 빈번히 한 성직록의 일도 할 의향이 없는 한 개인에게 들, 셋, 넷, 다섯 혹은 그 이상의 성직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약탈 신성 모독죄로는 이른바 (임직(任職)) 첫해의 열매들과 십일조들로 불리는, 로마 교황청 적그리스도가 주교들과 다른 사제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약탈물입니다. 교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교회들을 보호하며, 교회 목회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경건하고도 공정한 수당(사례비)을 지급하고, 가난한 자에게 생활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구제품(救濟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교회 재산을 적법하게 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 자들과 실제로 가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엄히 금해야 합니다.

거룩한 총대주교들과 거룩한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교회 재산이 처리되게 해야 옳습니다. 교회 수입의 여분(餘分)은 오직 경건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들에만, 실제로 가난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전하께서는 교회가 경건하게 교회 재산을 보관하고 회수하여 옳은 목적에, 곧 교회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과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함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첫해 열매들의 강제징수와 같은 성직매매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긴급한 필요나 공공의 사업을 위해 사회 계층들과 개인들에게 경제적, 교회법적 의무들과 기부금을 반영 하셔야 합니다.... (마틴 부처)⁶⁸⁾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루터의 시대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칼빈의 디아코니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마틴 부처의 디아코니아사상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칼빈이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머무는 동안 천군만마와 같은 복음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소유한 부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제네바로 돌아간 후 그것들을 실행·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는 15세에 탁발수도회 중 하나인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수련생이 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그러던 중 1517년 마침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렸던 마틴 루터의 ‘논쟁’에 참

68) <http://blog.daum.net/stevision/15141314> (2016.7.25).

석했다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루터의 영향으로 인해 그는 교회의 헌금문제로 도화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서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인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와 츠빙글리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영향 때문에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부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다음 교회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성도들 개개인의 흐트러진 영적인 생활을 개혁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도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다. 더욱이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다워지는 진리차원의 개혁은 기본이고 이에 더 나아가 범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혁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이 부처와 루터의 개혁노선을 차별시켜 주었다.

또한 부처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개혁을 이루는데 있어서 교회의 조직으로 장로직을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카톨릭이 사도시대의 장로로서의 직무를 성직으로 혼용해버린 것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로직을 포함한 목사, 교사와 집사의 4직분을 주장하였다. 그들을 가리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을 가급적 세상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헌신적이 되도록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였다(Martin Bucer, 1972:239). 이렇게 4직분을 구분함으로써 교회의 정치뿐만 아니라 형제를 섬기는 ‘집사’직에 대한 언급으로 그들의 직무였던 ‘디아코니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마틴 부처는 열네 개의 ‘법’중 여섯 번째 법에서 어려운 이웃의 곤경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부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조직하였고, 거리에서 걸인들이 사라지게 하였다(Ronald S. Wallace, 1988:21). 교회에서 자신의 신학과 실천에 대한 부처의 가장 깊은 열망은 1523년에 썼던 시편의 제목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우리는 그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함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였다(Michiel A, 2009:108) 이처럼 부처는 스트라스부르그에 사역할 때 신명을 바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546년 카알 5세의 군대가 스트라스부르그를 함락하여 종교개혁을 방해하자 개혁운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1548년의 아우구스 부르그가 신조협정의 결과로서, 부처가 4반세기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였던 스트라스부르그를 떠날 수 밖에 없었고, 1549년 부처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토머스 크랜머의 초청을 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에드워드 6세에 의하여

케임브리지대학의 흄정교수(Regius Professor)로 임명되었다. 그 곳에서 신학 운동을 전개하여 후대의 청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155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오덕교, 2005:242-243). 비록 부처의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교회의 직책에 관한 부처의 장로, 목사, 교사와 집사의 4직분에 대한 규정은 칼빈에 의해 제네바에서 채택되어졌다. 따라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법령을 통해 정의했던 4직분론은 스트라스부르그에 이미 있었고, 칼빈이 제네바로 차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칼빈은 부처와 달리 제네바에 성공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 실행하였다(David Lawrence, 2008:134-136).

(2) 부처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부처의 디아코니아는 개별적인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과 조직적이며 제도와 단체를 통해 약·빈자를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의 디아코니아는 개별적인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개개인의 실천에 두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하도록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칼빈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비로소 디아코니아를 조직적, 제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성서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사회복지적 이웃사랑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David Lawrence, 2008:134-136).

부처는 기독교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디아코니아의 신학자’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당대의 어떤 개혁성향의 인물들보다 성서적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했고, 그의 시대 이래로 대부분의 신학자들 이상으로 절박하게 교회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강조했다(최운배, 2012:448). 그의 마지막 위대한 작품 『그리스도 왕국론』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란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각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과 몸에 속한 문제들 안에서 반드시 그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 모두 공적인 유용성을 조장하기 위해 부름 받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최운배, 2012:454). 또한 집사에 관한 직에 대하여 부처는 『요약적 개념』이라는 황제에게 보내진 책에서, “영혼 치유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면서, 열심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자들”이라고 표했다.

또한, 『에베소서 주석』에서는, “집사들은 감독들과 장로들의 사역을 도와주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독들과 장로들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기록했다. 『참 영혼 치유에 관하여』에서 부처는 “집사들의 직분과 직책은...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조건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신의 동산과 부동산으로부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부하여야한다...집사들은 이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역 주민이든지 나그네이든지 간에, 부지런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윤배, 2012:454-456).

또한, 왕 에드워드 6세를 향해 『그리스도 왕국론』 두 번째 책에서는, 교회의 재산을 회복시켜 곤란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룩한 준비와 돌봄이 수행되지 않는 한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최윤배, 2012:467-468) 구제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을 강조했다. 특히 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집사들은 가난으로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과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될 자들의 요구로 인하여 진정으로 구제와 동정이 반드시 필요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무질서를 야기 시킨 자들을 발견한다면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추방령까지 내려야 한다고까지 단호하게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집사의 의무가 교구민들의 능력에 따라 모든 교구민들로부터 기부금(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을 적절하게 모으는데 열심을 내고, 반드시 수량을 기록하여 보관하라고 했다(최윤배, 2012:467). 그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처 하는 자로서 무위도식을 경계하면서 이런 메시지로 훈계 하였다, “게으른 자는 수벌처럼 타인의 노동을 주식(主食)으로 삼으면 안 된다.”⁶⁹⁾

6)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웨슬리의 성서적 재물사상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여덟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6장 19-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관에 대해 설교하였다.

69) <http://blog.daum.net/stevision/15141314> (2016.11.11.)

첫째,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침이 없이 정직하게 저축할 수 있는 것을 저축하여, 아무에게나 빚지지 말라. 또한 그것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금 같은 것을 지출하라.

둘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즉 유익한 음식물이나 깨끗한 의복을 입기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라.

셋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라. 만일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자기의 처지를 위한 생활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을 버린 사람ियो,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딤후 5:8)이다.

넷째, 예수님의 계명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목적, 즉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또는 생활의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와 나의 생존 시에나 사후에 나의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려는 목적 아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라고 설교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는 정도 이상으로 재물을 땅 위에 쌓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피로 사신 주님을 상습적으로 부인하는 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자이며, 불신앙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다 (조종남, 2006:228-229).

그리고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 아홉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6장 24-3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다. 그럼 두 주인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과 모든 영의 주체와 우리 영혼

유일의 안식처와 우리가 가진 전 재능을 충족케 할 최상의 선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욕망을 만족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내 생의 목적으로 삼아, 모든 일에 그분만을 앙망하며, 모든 사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굽어 보살피고 계심을 느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뜻한다(조종남, 2006:245-249).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만사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며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와 우리의 전부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닮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를 정신적으로 본받는 일이다. 정신적으로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그를 본받는 일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영적,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자비로울 것이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요, 친절하고 자선심이 많고 연민의 정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선량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피조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넷째로 순종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영혼과 몸을 바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명령을 성심으로 준행하는 것이며, 그가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성심을 다한 심정으로 하며, 우리의 생활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성스럽고 열렬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조종남, 2006:249-250).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본받고 닮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존 웨슬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첫째로 부와 돈과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고, 그것에서 안위를 얻고 또한 그것이 모든 난관에서 구출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줄 믿으며, 사람의 삶과 그 즐거움이 소유의 풍성한데 있다고 믿으며, 보이는 물질로부터 안식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만족을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둘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물건에 다가가 자신의 기쁨을 두며,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한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며, 그리고 부러진 갈대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심혼을 기울여 안식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셋째로 세상을 본받고 거기에 맞추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모든 계획과 욕심과 마음과 감정을 세상일에 합당하도록 맞추며 모든 일을 세상적인 생각과 관능적인 충동에 의한 것에 의존함으로써 세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음을 말한다. 그리고 항상 아집과 자기중심으로 행동하며, 우리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며, 인간의 명예와 욕망을 가지고 여기에 만족하며, 반면 그들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꺼리며, 사람의 비난에 참지 못하며, 쉽게 분노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데 빠른 것을 뜻한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넷째로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다. 즉 세상에서의 생활 방도와 그 풍습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도 평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뿐 아니라 일반 유행을 따르며 대중을 따라가며 이웃의 눈치를 보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육적인 충동과 저열한 마음의 조종을 받으며, 더러운 욕심과 성향의 만족을 추구하며, 모든 일에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채우기에 급급함을 말한다(조종남, 2006:250-252)

웨슬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를 본받고 닮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재물을 섬기는 것은 부와 돈을 신뢰하며 목적 달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며, 그 물질에서 행복, 안식, 생의 만족을 찾으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본받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과,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두 가지 모두에게 실망을 느낄 것이고 아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신학은 한 마디로 행동주의 신학자이다(조경철, 1992:26). 웨슬리는 그의 설교 '하나님의 포도원에 관하여'(On God's Vineyard)에서 선행과

사랑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 지적인 참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John Wesley,1986:204).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 과정에 있음을 아는 척도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닳아가는 삶을 행동으로 표현해 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성화에 본을 보이고 동참시키려는 사랑의 적극적 행위는 세상 속에서 실천해 보임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헌금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실천에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John Wesley,1986:472). 또한, 웨슬리는 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지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재정은 곧 '돈'이라고 했다. 돈은 극단적으로 선과 악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악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물관에 입각하여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홍기, 1996:339).

웨슬리는 그의 책 산상수훈설교 VIII(Sermon on Mount VIII)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은 교회를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반환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용되어지는 교회재정을 예배(신앙)로 분류하였다(김홍기, 1996:285).

(2) 웨슬리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웨슬리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를 중심으로 1760년 설교집에 실린 설교인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치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 법칙으로 설교한다(조종남, 2006:281).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들. 그러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보존해야

한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된 국가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사취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해치지 않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고 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처럼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어느 것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의 육체를 해침으로써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어떤 것이라도 팔지 말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통 럼주라고 불리는 불같이 독한 술, 알콜성이 강한 주류들을 말한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 진실과 지혜와 열정을 다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벌었다면 신중하게 행해야 할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저축하라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귀중한 달란트의 일부를 단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어떠한 종류의 즐거움이든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식이며 값비싼 의복이나 필요 없는 장신구를 가짐으로써 귀중한 재물의 일부라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또한 생활을 하면서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한다. 자녀들에게도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저축하는 데까지 이르고 거기서 멈추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만일 사람이 거기서 멈추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많이 쌓아 놓기만 하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저축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한다.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이러한 이유와 근거는 천지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재물을 맡기셨는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현명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맡기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도로 그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알고 그 중에서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

급하는 것이다. 즉 의식주 문제와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요구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내와 자녀, 하인 그리고 우리 가족에 속한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공급하라고 한다. 만일 그렇게 하고도 남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선용하라’고 한다. 만일 그래도 남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용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조종남, 2006:282-297).

웨슬리의 이웃사랑 신앙원칙으로 첫째는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사상에 부응하여 사회적 실천을 감당하려면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의 재정을 모으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는 무엇보다 경제윤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윤리의 바탕은 바로 성경말씀 대로 행동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천지의 주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유권은 철저히 생존기간 동안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십일조 정신의 실천이다. 웨슬리는 유대인은 자기소유의 1/10을 나누어주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소유(2/10)를 나누어 주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눠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 이웃에게 베푸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John Wesley, 1980:283).

특히, 현대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적절한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극히 소수의 교회가 신용 금고를 만들어 낮은 이자로 교인들에게 대출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으나 그 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제도와 조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김영선, 2002:393). 그의 사회적 관심은 빈곤, 무지, 질병, 감옥의 비위생성, 주벽 등에 있었고, 이러한 사회악을 낳은 정치적, 경제적 제9도에 비판을 가했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영적 부흥운동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그것이 18세기 영국사회를 변혁시키는 계몽적 차원의 사회적 성화(social sanctification)운동,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운동으로까지 확산”된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있다(김은영, 2003). 웨슬리는 결론적으로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위한 모든 경비를 중단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한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행위가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십일조에 대해서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리고 전부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은영, 2003:298).

7)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머레이의⁷⁰⁾ 성서 윤리적 재물관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앤드류 머레이의 New Life』에서 ‘예수님께 드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곳에서 그의 재물에 대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앤드류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고백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숨기거나 놓치지 말고 고백해야 한다. 회심이 없이는 드림도 없다. 자신의 능력도 남김 없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입에 담긴 모든 말들, 마음속에 채워진 모든 느낌들, 그리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들 뿐 아니라, 시간, 명예, 영향력, 제물도 제단 앞에 바치라(차명호, 2014:54).

앤드류 머레이는 먼저 자신을 드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것은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회심이다. 그 회심이 없이는 드림도 없다는 것이다. 그 후에 드리는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

70)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1828.5.9.~1917.1.18.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인정받는 인물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는 남아프리카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지닌 저술가인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저서들(240여 편 이상)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의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생활 가운데 특히 이웃을 내 몸처럼 성서적 재물 관을 가지고(앤드류 머레이 New Life)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청지기사상을 강조하였고 탐욕을 멀리하고 약자를 위해 바른 사용을 강조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앤드류 머레이 [Andrew Murray] (해외전자사전, 2014. 5 교보문고)

는 우리의 연보, 재능, 봉사 등을 드릴 때 먼저 내 자신을 살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셨으며 모든 것을 명령하신다. 당신 자신과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축복 하시도록 하라. ‘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의 것이며 내 소유물 모두도 다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이다(차명호, 2014:54).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주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의 목적을 안다. 성전의 제단에서는 봉헌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그 봉헌물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가져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차명호, 2014:199-120).

그는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헌신이 되어야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된 성전과 같다고 하면서 누구도 성전에 드린 봉헌물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고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당신 자신을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라. 당신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 축복과 사랑과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차명호, 2014:201-202).

① 머레이의 약·빈자 보호사상

머레이는 그의 책 『앤드류 머레이의 New Life』에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전도서 10장 19절 “돈은 범사에 이용 되느니라” 사사기 17장 3절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그럼 그가 말하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인가?

a) 머레이의 재물에 대한 의미

재물이란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며 어떤 능력을 발휘한 대가이며 일한데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재물은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차명호, 2014:259-260).

머레이는 재물은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며 능력을 발휘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였다. 재물은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징표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원하는 것을 사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은 근면한 자에게 찾아오고, 더 큰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 정신을 갖는다.

성경은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무엇보다도 재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마6:31). 또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열망하면서(요일2:15), 비록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데 아주 인색해진다(약5:4). 그래서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기 위한 이기심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운다(눅 16:21).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잠7:24,26; 말3:8)(차명호, 2014:260).

머레이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염려를 언급한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재물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인색해지고, 재물을 사랑하다보니 탐욕이 생기고, 그것을 축적하고, 나누지 못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생기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축복으로 인식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할 때 재물의 축복을 주시며(잠 10:4,22),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재물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덕스러운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야 한다. (사 47:7,8,10,11; 고후8:14,15).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이다(고후 9:12,13)(차명호, 2014:260).

머레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할 때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

들을 위해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재물은 영성 있는 바른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머레이는 재물의 위험에서 벗어나 올바른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재물에 대한 사용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사실이다.

2)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 놓으라.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4:4,5).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재물은 거룩하여질 것이며 축복이 될 것이다.

3) 재물과 세상의 소유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묵상하라.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4)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삶이 되게 하라.

우리는 모든 재물을 단지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의 대가로 받았으며 부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요함을 얻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눅19:8).

5) 재물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어지지 않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주어졌음을 깨달으라,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재물이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재물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그들을 즐겁게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을 확대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잠 14:31).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재물이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재물이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재물을 기꺼이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축복된 일에 재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차명호, 2014:260-262).

(2) 머레이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① 머레이의 십일조에 대한 견해

머레이는 그의 히브리서 강해 『지성소 The Holiest of All』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서 히브리서 7장 4-19절⁷¹⁾을 강해하면서 십일조에 대해서 그의 견해를 밝혔다.

②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드린 십일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중적인 증거가 주어졌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형제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았으나 여기에서는 낯선 자가 온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죽는 자들이 십일조를 받았으나 여기에서는 성경이 말하는바 항상 살아있는 자가 받았다. 그리고 십일조를 받은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십일조를 드렸다는 것이다(정현대, 2008:193).

여기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으로 십일조를 드린 것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이 된다.

③ 축복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십일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분께 십일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복종을 받으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적 희생에 대하여도 권리

71) 히 7:4-10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를 가지신다. 십일조와 축복간의 관계는 우리 아는 것보다 낫다(차명호, 2014:194-195)).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십일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유 전부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이중적인 관계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유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 축복의 충만과 크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 계시될 것이라고 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전체적 축복은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에 오시는 성령이시라고 했다. 기록 된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갈3:14)인 것이다.

8)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서적 청교도사상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그의 어머니의 가정도 청교도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에드워즈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설교에는 청교도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곧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체험해 보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백금산, 2013:54).

에드워즈의 설교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 나타난 회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청교도들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볼 수 있다. 청교도들의 주요 신념에 대해서 마크 놀(Mark A. Noll)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최재건, 2005: 60-63).

첫째로, 청교도들은 인간이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이란 하나님이 구원과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택하지 않을 죄인들이라고 믿었다.

둘째로, 청교도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었다. 특별히 성경이 “규범적인” 권위를 행사한다고 믿었고, 이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가능한 한 성경이 지시하는 것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통일된 전체로서 이 사회를 창조하셨다고 믿었다. 교회와 국가, 즉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모두 서로 무관한 삶의 영역들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계속되는 섭리에 의해 밀접하게 결속된다고 믿었다. 이 확신은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청교도들의 모든 노력의 이면에서 작용했다.

넷째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항상 언약을 통해서 또는 엄숙한 합의하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접근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언약들의 기간과 조건들을 설명한다고 믿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공로를 부여하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청교도들이 목표에 있어서는 일치했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견해가 달랐다. 많은 청교도인들은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나 소수의 청교도들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방법이며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개혁불능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1560년 후반에 하나의 교회가 런던에 생겨났다(양낙홍, 2003:26-27).

(2) 에드워즈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① 에드워즈의 십일조 헌금에 대한 견해

그는 설교 중에 말라기 3장 9-10절을 중심으로 십일조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결핍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부양을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에 대하여 그들 자신들은 면제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다. 그들이 초래한 결핍을 구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는데 태만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은 다시 결핍이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의무를 기쁨으로 수행한다면 그들의 원하는 바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확실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Jonathan Edwards, 2006:79).

말라기 선지자시대는 왜 결핍의 시대였는가? 학개 선지자는 학개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하였으며, 학개 1장 9-10절에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라기시대의 결핍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저들은 포로귀환 후에도 하나님 것,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것, 자기 집, 자기 일을 하는데 빨랐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결핍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레위인들의 부양을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스스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핍을 구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십일조생활에 태만하였으며 그에 대한 벌은 또 다시 결핍이었다. 그러므로 악순환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결핍을 구실로 십일조를 중단하지 말고 그들의 의무를 기쁨으로 수행한다면 그들의 원하는 바가 풍족히 확실히 채워질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9-10).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지출을 하여 사역자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특별히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역자와 너와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사역자에게 잘하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잘한다. 하지만 그 후에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질 때는 실패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은 너무도 자주 일어난다(Jonathan Edwards, 79).

에드워즈는 사역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평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십일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전하고 있다.

에드워즈는 십일조 의무에 대하여 원칙을 말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세속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속적인 이익과 특별히 관련된 경우에는 교인들에게 이런 의무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것이며 성도의 의무인 십일조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사역자(목사)에 대한 생계유지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것이며 이것은 내가 모두 열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목사)에 대한 생계유지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상당히 그것이 그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라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아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미미한 영광을 도리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이 겸손히 소망하는 것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과 같이 축복하신다.

에드워즈는 사역자의 생계유지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역자에게는 올바른 것이며, 에드워즈도 열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사람은 그 지출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되지 않고 잠언의 말씀처럼 오히려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0-12).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무의 방법 안에서 그를 믿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

에드워즈는 십일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십일조의 의무와 축복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적용하여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길을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에드워즈의 마태복음 십일조사상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0년에 ‘설교와 담론’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의식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소위 위대하다고 하는 성인들(saints)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미세하고도 작은 율법 하나로부터라도 이탈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대단히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십일조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들은 심지어 화원에서 재배하는 식물의 십일조 즉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매우 정확했습니다.(마23:23). 그들은 모든 의식 정결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존의 율법에다 특정한 율법들을 더 부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더 엄격했으며 정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식사시간마다 그들의 손을 씻음으로 양심을 씻으려 했던 것입니다(Jonathan Edwards,:77).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의식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다고 한다. 그중에 그들의 십일조 드림에 대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대단히 신중하고도 정확했는데 심지어 화원에서 재배하는 식물의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대단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형식주의나 위선이었다 할지라도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신중하고도 정확했다는 것이다. 대단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성이 크다. 과연 우리는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드리고자 하며,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당연히 신앙적 장점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조항인 십일조 실행은 당연한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⁷²⁾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분의 어명으로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십일조를 낼까말까 고민하지 말고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즐겁게 감사하며 천국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야 하는 당연한 논리로 천명한 것이다.

9) 비헤른(Johann Hinrich Wichern)의 십일조와 기독교사회복지

1) 비헤른의 성서적 재물사상

비헤른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라고 할 만큼 기독교사랑을 실천하는 운동가로 유명하였고, 그는 내방선교(Innere Mission)를 조직하여 19세기유럽의 사회운동과 더불어 기독교사회운동을 시작한 주인공이다. 특히 그는 “자비의 천재”라고 할 만큼 기독교사회운동의 주된 목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운동에 큰 영향을 준 당대의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비헤른 전문가 칼 안센은 비헤른의 신학이 “역사적 순간에 요구된 도전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를 시도한 신학의 전형”으로 증명된 것이라 적절하게 규정하였다(Karl Janssen,1973:109).

또한 귄터 브라켈만은 “내적 선교의 전령자”요 “내적 선교의 중앙위원회”의 기초자인 비헤른을 “개신교적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요 내적선교의 형태 속에서 조직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룬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한다(Günter Brakelmann, 1962:15).

비헤른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당대의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슈라이어르마허와 헤겔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비헤른은 아우구스트 네안더와 프리드리히 뉘케의 신학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한 동시에 경험가요, 사회과학적으로 정향된 기독교사랑 실천가였으며 그의 지평은 예큐메니칼적이었다. 독일의 대통령 테오도아 호이세는 비헤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비헤른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를 재촉했기 때문이다”(Rauh's Haus, 1952:7). 할 정도로 독일사회에서 이름난 기독교사회복지적

72)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 23:23).

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으로 유럽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질서와 낡은 자의식이 무너지고 있었고 “사회적(Soziales)”이라는 개념이 개신교와 계몽적 이상적 인간주의 안에 등장하였다. 종교개혁시대에 만인사제설이 구원의 전달(Vermittlung)의 문제에 관여된 것이라면 비헤른 시대에 다시 부각된 만인사제설은 구원의 산출(Produktion)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Jürgen Albert, 1998:13). 개신교 안에서도 기존의 국가교회와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교회의 직분 이해에 새로운 기조로 맞서는 만인사제설이 국가교회의 질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비헤른의 교회론적 구상은 주교회적인 기존교회의 직분론적 구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비헤른은 1856년 “디아코니아와 섬김직에 관한 평가서”에서 그의 총체적인 신학적 관점을 밝힌다(J. H. Wichern, 1968:130). 여기에서 그는 디아코니아를 “신구약성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보며 특히 “이미 약속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교회사적 관점과 하나님나라의 역사관점을 구분한다. 이러한 하나님나라의 관점은 모든 실천을 이끄는 추동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세계에 깊이 들어가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있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위해” “하나님으로 깊이” 되돌아 가야한다고 강변한다. 당대에 있어서 비헤른 만큼 약·빈자를 위하여 디아코니아정신으로 에큐메니칼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대변했던 인물은 별로 없었다. 그는 디아코니아와 섬김직이 모든 종류의 제한적 입장들을 벗어나야함을 강조한다. 그는 개신교 내부에 뿐만 아니라 내적선교의 모든 행위가 모든 신앙고백의 그룹들을 넘어 비성서적인 많은 반대들을 극복해야함을 말한다.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 이해는 술라이에르마허와 평신도와 성직자의 간극을 철폐한 헤른후트 형제단운동에 근거한다. 자유, 진실, 공동체 그리고 상호간의 사랑에 근거한 비헤른의 교회이해는 요한복음의 사랑의 공동체에 정향된 교회이해라 할 수 있다. 1839년 “주의 진실한 공동체”(J. H. Wichern, 1962:57) 라는 그의 글에서 확인 하듯이 그는 교회를 사랑 자체라 하며 사랑 안에서의 삶을 교회라 한다(J. H. Wichern, 1962:57).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유”는 교회밖엔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적극적 자유는 세상을 극복케 한다고 한다(J. H. Wichern, 1962:58).

이 자유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적 통합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유는 같은 사고를 지닌 공동체 안에서만이 가능하며 이로

서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된다고 한다(J. H. Wichern, 1962:60).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교회는 해방 받은 이들의 진리를 위한 협회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J. H. Wichern, 1962:61). 비헤른은 교회를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라 하며, 요 13장-17장의 고별사를 공동체의 기본규정으로 삼는다. 즉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어 줌”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서로의 죄를 깨끗케 한다고 한다. 또한 요한의 교회라는 설교에서 요 16:15이하를 증거로 주의 교회는 형제적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직무에 근거, 영을 통해 역사하는 교회라 한다(홍주민, 2015:303). 또한 요 1, 4:8-11의 본문을 주제로 하는 설교에서 형제적 사랑의 계명이 그의 제자를 인식하는 표식이며 자매적 사랑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공동의 삶으로 이끌며 디아코니아적으로 구조화된다고 한다(홍주민, 2015:303).

즉 섬기는 자가 큰 사람으로 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더 나아가 요 13,34이하의 설교를 통해 형제적 사랑과 일반적 사랑을 엄격히 구분하며 예수의 고별시, 새 계명을 준 것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간의 상호적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한다. 서로 발을 씻어주고 이를 통해 항상 새로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지고 거룩해 지는 것이다.(홍주민, 2015:303).

(2) 비헤른의 기독교사회복지사상

19세기의 유럽의 사회문제는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을 만나 자본가와 노동자가 원만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정의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거리에 버려지고 부녀자들과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방황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당시사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어 결국 1848년의 혁명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848년 9월 22일 비헤른이 행한 비텐베르크에서의 즉흥연설문을 사람들은 1517년 루터의 동일한 곳에서의 95개 벽보조항과 비교를 한다.⁷³⁾

비헤른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비헤른은 확고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도 설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

73) 1848년 비헤른의 즉흥연설과 1849년의 백서: J. H. Wichern, "Rede auf dem Wittenberger Kirchentag vom 22. September 1848"; J. H. Wichern, "Die innere Mission der deutschen evangelischen Kirche: Eine Denkschrift an die deutsche Nation, 1849", in: *SW I*, 155-165 그리고 175-366.

장 지고하고 순수한 교회적인 행위는 구원하는 사랑이다.”⁷⁴⁾ 개신교 교회는 그 때문에 다음을 고백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신앙이다.”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자로의 예수를 억압당하는 이들의 변호사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 개입과 대립시키고 반목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의 예리한 눈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곤경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여 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현실을 사랑의 구원하는 행위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전력을 다하여 현실의 변혁을 위하여 투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헤른은 이것이 모든 교회의 소명임을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즉 “내적 선교”, 디아코니아는 “교회 밖과 측면에서의 삶의 표면”일 수 없으며, 디아코니아는 “신앙하는 사랑의 영적 생명”인 교회의 본질로 나타나고자 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디아코니아가 함께 속하여 있다거나, 혹은 두개의 구조연합을 통하여 서로 연결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 둘의 내적 삶의 과정은 서로 서로 맞추어져야 하고 우선순위는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안에 디아코니아 사업을 독립하는 것의 위험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비헤른은 분명히 인식하였다.

독일내 디아코니아 기관에 대하여 비헤른은 본질적으로 교회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일 교회를 섬기지 않고, 외부에서 자기 권력적 형태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디아코니아 기관에 그러한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교회와 교회복지선교기관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헤른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모든 이들의 직분”이고 루터에 의해 재발견된 “만인 사제직”(Martin Schian, 1930:1492-1495)은 디아코니아적인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천명한다. 즉 그는 만인사제직을 세례를 근거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직분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각 개인의 카리스마(은사)와 직분이 통일을 이루고(vocatio interna und

74) 비헤른은 디아코니아적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이해하였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원하는 이로서 변형된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도움에 의존하는 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도 있다. 이러한 사고는 비헤른에게 있어 기독교론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는 다양한 은사 안에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앞에 가난한 이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다.

externa) 신앙과 행동, 그리고 소명(Berufung)과 직업(Beruf)이 일치될 이룬다. 여기에 “직접 행하는 참여, 말하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모든 이가 다른 이들과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론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실천자체가 표현되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비헤른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 내에 있는 은사(카리스마)들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그래서 비헤른은 디아코니아적인 전문가주의를 반대하며 내적선교안의 전문지식이 결여된 졸렬함에도 경고를 하고 있다. 그의 사고는 실천, 즉 신학적으로 책임적인 실천에 목표를 두었고 이론과 실천의 교차를 중시하였다.

비헤른은 그리스도교적 사회를 건강한 국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적절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체로 파악한다. 비헤른의 특별한 업적은 글이나 실천적 단체구성을 통하여 당대의 흩어져 있던 기독교사회복지적 행위들의 연관성을 정리했다는 데 있다. 비헤른은 “모든 개별적 도움이 전체로 연결되어져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인 도움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랑의 구축”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악과 고난의 현실은 “행동과 삶”으로 극복되어진다고 이해한다. 만인 사제직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광범위한 구원사역에 참여케 한다. 이로써 각각의 개별화된 행동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의 전체적 행위 안에 놓이게 한다(J. H. Wichern, 1849:50).

3. 결론

서구교회사의 종교개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합일(合一)된 생각이다. 단지 종교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의 소란함이 거듭 누적됨으로써 일어난 것이었다(김수학, 1990:50).

성서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결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십일조’는 종교 개혁의 이슈 중 하나로 개혁의 과정 속에서 성서적 원칙으로 회귀하게 되고 19세기 이후 그 법과 제도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 교회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십일조가 다시 중세 교회의 그릇된 모습으로 회귀하여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⁷⁵⁾

75) 교회사의 거대한 주류(主流)를 바꾼 종교개혁이 단지 몇 몇 사람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는 하나의

1525년 종교개혁이 확대되는 가운데 독일 바이세나우의 슈바벤 ‘농민반란’에서는 그들의 항거에 대한 기초를 성서와 복음에 두었다. 성서와 복음을 근거로 12개항의 개혁을 요청했다. 그 중에서 ‘십일조에 대한 성서적 사용’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내용에 주목(注目)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십일조가 그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서 분문을 통전적으로 바르게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해체됨에 따라 수도원 조직으로 들어갔던 십일조와 헌금들은 왕의 재산으로 돌려졌다. 또한 십일조들이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로 돌려지기도 했었다. 이것은 명백히 성서적 정의로 볼 때 십일조의 원래 목적과는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면죄부와 아울러 십일조의 거짓된 정체가 폭로되고 그 힘을 차차 잃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결과 서방 카톨릭교회는 십일조 수입을 상실했다. 이제 십일조는 다시 성서적으로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재 고찰 되었다. 스위스의 재세례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자와 십일조 모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폭동을 일으켰던 독일의 농민들은 1525년의 12개조 선언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이 십일조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대로 그 국가의 공인종교가 된 곳에서는 십일조가 보다 엄격하게 정의되어져서 징수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또한, 부분적으로는 교회로부터의 재산 양도 때문에 십일조에 대해 배척하는 풍조가 확대되었다.⁷⁶⁾ 이렇게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권력과 세력의 과도적 진공상태에서 십일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주로 평신도들 사이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들은 성서적인 해석과 이해의 올바른 준거(準據)없이 수입의 일정한 분량을 하나님 사업에 봉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현세의 축

일방적인 논리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 이 개혁은 출애굽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의 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며 준비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황들 자체가 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단순히 개혁자들에 의한 개혁으로만, 루터와 쾰링거, 멜랑히톤, 칼빈, 그리고 몇몇 소수 특출한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중요한 인물 중심의 논의와 사상에 편중되어 종교개혁에 대한 해석 및 이해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主權)과 섭리(攝理)를 약화(弱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서의 재발견을 기초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사건과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 차원에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십일조의 심각한 왜곡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Euan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 293-313 참고.

76) 항목, “십일조,” 『기독교대백과사전』, 696.

복은 물론 모든 삶의 현실에서 부와 번창을 약속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의 근거로 차용한 성서 본문은 말라기 3장 10절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실제와 경향은 한국교회의 실상과 매우 동일하다. 교회의 규모와 조직들이 비대해지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필요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세속적 목적과 방법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 중 하나였으며 종교개혁의 동인(動因)과 그 대상(對象)이 되었던 훼손 및 변질된 형태의 십일조를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활시키고 강요함으로써 종교개혁 이전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回歸)하는 반역사적(反歷史的) 태도(態度)를 견지(堅持)하고 있는 셈이다(조누가, 100-101).⁷⁷⁾ 물론 이런 사상의 저자(조누가)의 주장하는 말에 동의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자칫 남의 텃밭에 들어가서 망치게 하는 개, 돼지만 야 단치는 격이나 되지 않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웃을 해치는 짐승이 울안에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도록 빈틈을 막고 빠르게 개선해야 함이 시급하다.

77)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 시대 동안 막대한 십일조 수입으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온 로마 카톨릭은 이제 십일조 교리를 버리고 자율적인 헌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M. Luther 와 John Calvin과 같은 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을 추종하는 후대 개혁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시 중세 교회와 역사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탈 현대의 교회가 중세로 회귀하여 왜곡된 십일조를 강화하고 교리화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시대적 착오이자 오류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 2014,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 김영선, 2002, 『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 . 대한기독교서회.
- 김옥순, 2011, 『디아코니아 신학』 . 서울: 한들출판사.
- 김진두, 2003,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 김흥기, 1996, 『존 웨슬리의 회년사상』 .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 박경수, 2009, 『교회의 신학자 칼뱅』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박영호, 2001, 『기독교 사회복지』 .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일배, 2012, 『너무나도 성경적인 십일조이야기』 . 서울: 리북출판사.
- 양낙홍, 2012,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조성기, 2012, 『십일조는 없다』 . 서울: 평단문화사.
- 최윤배, 2012,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한완상, 2008, 『예수 없는 예수교회』 . 과주: 김영사.
- Cameron, Euan, 1991,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Clark, C. A. 1937,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Illustrated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Gäbler, Ulrich. 1987, *Huldrych Zwingli*. tr. Ruth C. L. Gritsch. Edinburgh: T.&T. Clark Ltd..
- Gerhardt, Martin. 1927, *Johann Hinrich Wichern, ein Lebensbild: Jugend und Aufstieg, 1808–1845*. Hamburg: Agentur des Rauhen Hauses.
- Lawrence, David. 2008, *Martin Bucer: Unsung Hero of the Reformation*. Westview Publishing Co., INC.,
- Lindberg, C. 1996, *The European Reformations*. Peabody: Blackwell.
- McKim, Donald K. 2004,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ther, M. 1960, "Lectures on Genesis" 13: 2. on LW 2.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Calvin, J./ 김문제 옮김. 1979, 『기독교강요』 III. 서울: 세종문화사.
- Bucer, M. 1972, *Common Places of Martin Bucer*, tr. and ed. by D. F. Wright. Abingdon: The Sutton Courtenay Press.
- Wesley, John/ 조종남 외 옮김, 2006,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

집』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강성옥, 2014, “스웨덴 복지국가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추현, 1998, “말라기서에 나타난 십일조의 해석과 현대교회의 적용에 관하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우, 2009, “물질 소유와 사용에 대한 요한 칼빈의 견해.” 대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정, 1984, “교회재정에 관한 연구: 평신도 중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김기원, 2011, “루터의 종교개혁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한국기독교사회복지』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동주, 2005, “기독교 사회봉사와 마틴 루터의 개혁: 교육, 자선, 사회복지의 새 패러다임.” 『기독교교육정보』 11.

박경수, 2009,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손병덕, 2008,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주는 교훈.” 『칼빈연구』 제5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엄진섭, 2006, “루터의 소명관.” 『신학과 신앙』 17.

이성덕, 2006,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사회복지.” 『대학과 선교』 10.

이형기, 1998,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임희국, 2007,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경건.”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주승중, 2008, “장로교 예배 의식과 장로의 역할,”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길(I): 장로의 책임과 역할』 파주: 도서출판 성안당.

홍주민, 2007,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마틴 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

Abstract

Tithe and Christian social welfare of Reformers

Park, Kap 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Korean church today became a church without Jesus and existed as a religious group but lost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and became disgraced by the world. In addition, the Christian church while maintaining its own identity as a beautiful religion of love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should be checked for whether performed in the teachings of the Bible.

It is important to find meaning in practicing the love of Jesus in the Bible based on Christian social welfare concept. Neighborhood love, a general conc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combines the reverence of God with the service and service for the neighbor in the sovereignty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n other words, love for neighbors must be practiced for alienated neighbors by tithing . However, the Korean church does not communicate with neighbors but seeks to profit only from the interests of the local church and the individual. Therefore, the Korean church, like the 16th century western church, repent and repent through the Second Reformation. Based on the biblical and religious reform ideology, it revitalizes the meaning of tithing and finds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merit of tithing. And suggests the right path.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tithing, reformers, neighborhood love, the poverty